

불교인문학 이야기

불교와 한국 인문예술

제주불교문화대학

三國의 所依經典

한국 大方廣佛華嚴經

일본 妙法蓮華經,

중국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一切唯心造

(18계는 오직 마음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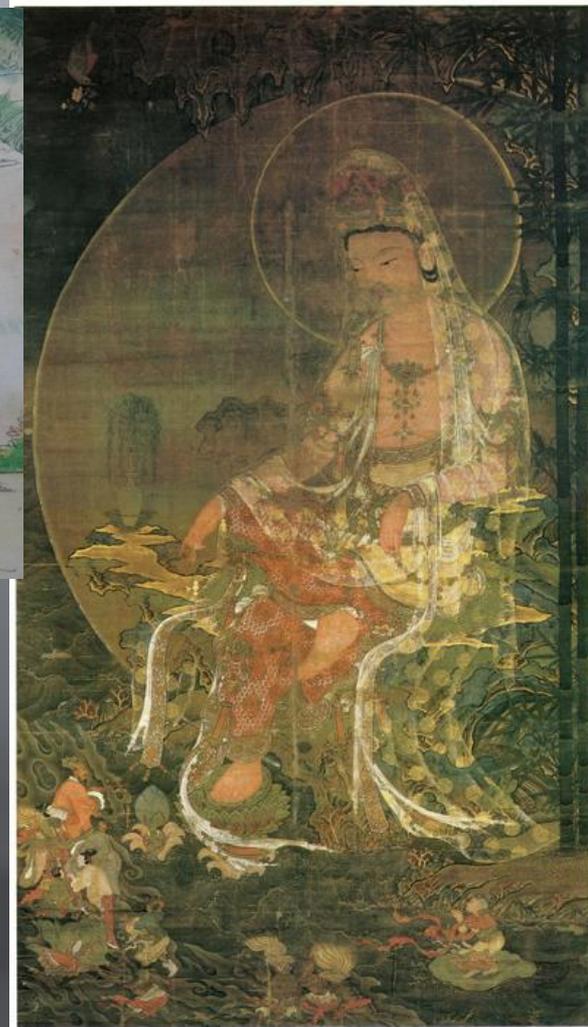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일체 부처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은
당연히 법계 현상을 관찰하라
일체가 그저 마음의 조화일뿐

실차난타, 80華嚴, 야마천궁보살설계품
'응당여시관 심조제여래應當如是觀 心造諸如來'

一微塵中含十方

화엄경, 입법계품, 선재동자와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장미 한 송이, 물 한 모금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도 있어...
하지만 눈은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지.”

一切母心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진자리 마른 자
리 갈아 눕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
하시네/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
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 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
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
리오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회건취습은(廻乾就濕恩)



당신 몸은
젖은 자리 누우시고
아기는 받들어서
마른자리 눕히시며

佛說大報父母恩重經

佛說大報父母恩重經

地持經卷第廿一卷

如是我聞一時佛在王舍城閻樹園祇樹給孤獨園與大比丘三萬八千人菩薩摩訶薩俱南行見一堆枯骨爾時如來五體投地禮拜枯骨阿難大衆由佛言世尊如來是三界大師曰生慈父衆人歸敬云何禮拜枯骨佛告阿難汝雖是吾上足弟子出家深遠知事未廣此一堆枯骨或是我前世翁祖累世翁娘吾今禮拜



佛告阿難汝將此一堆枯骨分作二分若是男子骨頭白了又重若是女人骨頭黑了又輕阿難由佛言世尊男人在世祀奉戴帽裝履即知是男兒之身女人在世遺塗赤珠脂鬘鬘髮其即知是女流之身如今死後白骨一盤教弟子如何認得

佛告阿難若是男人在世之時入於伽藍聽講經禮拜三寶念佛名字所以骨頭白了又重女人在世恣情嬉戲生男養女一廻生箇孩兒流出三對三膝凝血欽壞八針四野白乳所以骨頭黑了又輕阿難聞語痛割於心垂淚悲泣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三萬八千人，菩薩摩訶薩俱

최초의 한글저술은 佛經諺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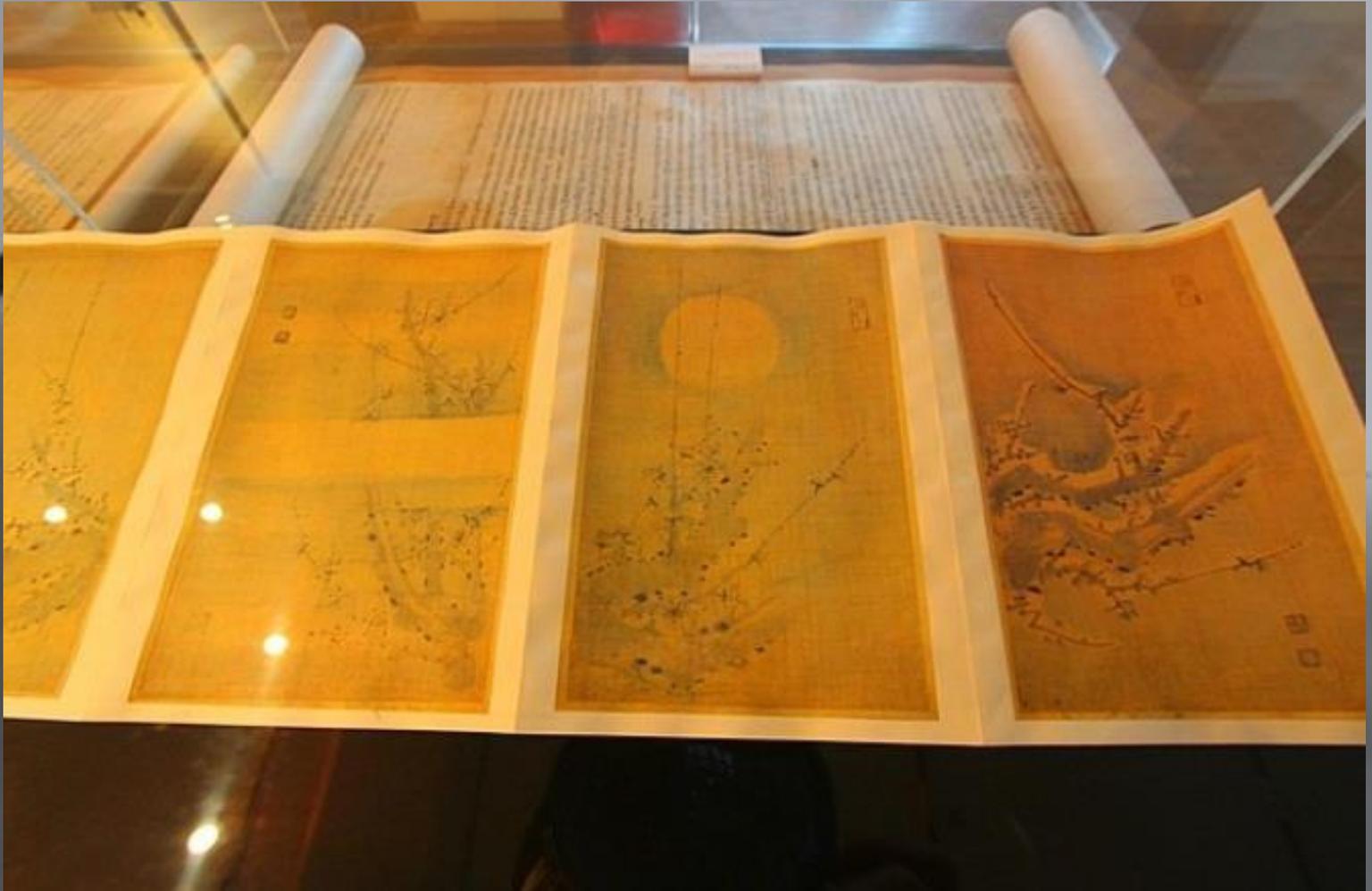
세계인이 인정한 최고의 번역시스템

소헌왕후 沈氏의 극락왕생을 비는 수양대군의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으로 답하는 아버지 세종, 세조 등극 후 <월인석보>로 합본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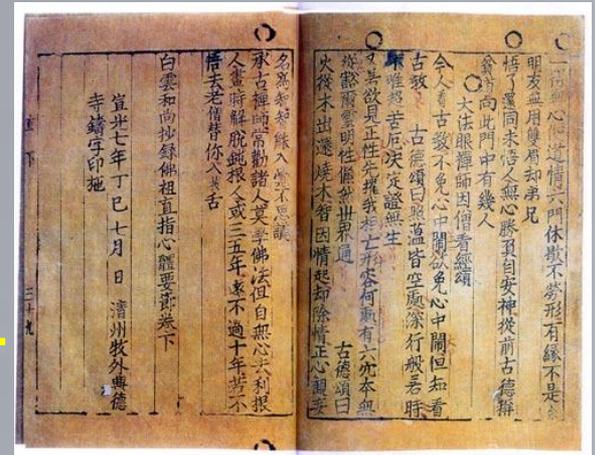
훈민정음은 불경 번역을 위해 신미스님 (祐國利世 慧覺尊者) 세종, 정의공주, 수양대군이 함께 완성한 문자 시스템

생육신 비구 김시습의 매화도, 2년간 세조와 불경언해 작업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無垢淨光大陀羅尼經(T.1024)

세계 4대 여행기 중 최고본



공부(工夫)의 어원: 주공부 做工夫 공부의 뜻: 열심히 참선하다

말세(末世), **상속**(相續), **염색**染色 > 染衣
현관(玄關), 언어도단(言語道斷),
도로아미타불(徒努/都盧阿彌陀佛),
면목(面目), 건달(乾達) 출세(間)
동냥(動鈴), 단도직입(單刀直入),
무진장(無盡藏), **참회**(懺悔, ksama) 행각(行脚) ⇔ 안거
공부(工夫) < (주공부 做工夫),



一切唯心造: 모든 현상은 오로지
길들지 않은 마음이 지으니



心, 剎那生 剎那滅 찰나생 찰나멸

剎那 ksana

120찰나, 1달찰나(一怛剎那:tat-ksana, 순간의 시간, 약 1.6초),

60달 찰나, 1납박(一臘縛:lava, 頃刻의 뜻, 약 96초),

30납박, 1모호율다(一牟呼栗多:muhūrta, 약 48분),

30모호율다, 1주야(一晝夜:24시간)

1찰나는 75분의 1초(약 0.013초)

만물이 1찰나마다 생겼다 멸하고, 멸했다가 생기면서 계속되어 나

간다

찰나생멸(剎那生滅)·찰나무상(剎那無常)이라고 한다.

阿毘達磨大毘婆沙論 권136

역사, 단멸의 연속

그리스 철학의 회귀적 역사관,
기독교의 종말론,
서양사학자 연속적 역사관

Oh, No! Continuty in Discontinuty!
역사는 불연속 속의 연속, 단멸하며 지속된다

미셸 푸코, <계몽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산수 지명

佛光敎會(서울 불광동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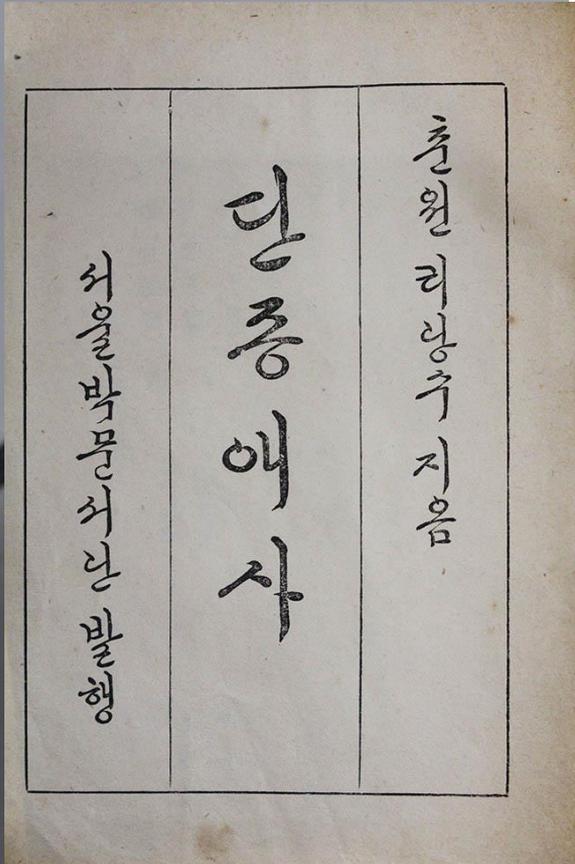
금강산, 열반산, 기달산, 漢羅山
보현봉, 문수봉, 비로봉, 의상봉
佛來岳, 원효로, 안양, 불광동 등

대부분 화엄 사상에서 유래

“동북쪽 바다 가운데에 금강산 이있으니, 담무갈보
살(曇無竭菩薩)이 일만이천 보살과 함께 늘 『반야경』
(般若經)을 설법(說法)한 다
화엄경, <제보살주처품>, (諸菩薩住處品)

한국의 근대문학

이광수 <단종애사> vs 김동인의 <대세주>



제 일 류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무술이 능하듯자 한낱 무사의 재물에 지나지 못한다.

방법에 능하듯자 또한 한낱 선비의 재물에 지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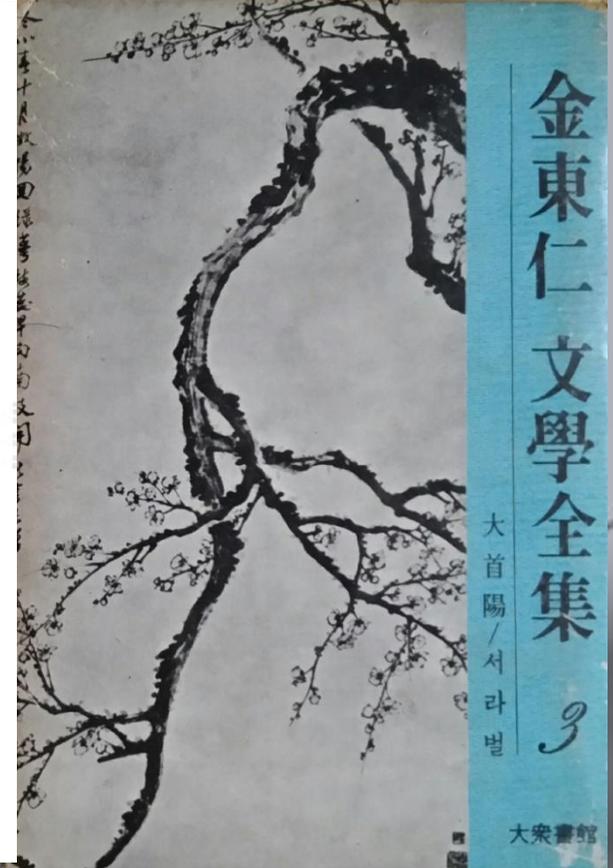
정치에 능하듯자 한낱 재상의 재물에 지나지 못한다.

진평의 인물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위압하는 힘이 있었다. 꼭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하여도 어찌서 그런지 옷사람의 기품이 보였다. 동궁과 진평이 꼭 같은 자비스러운 일을 한다 치더라도 동궁의 언행은 「인자스럽다」라고 평할 종류의 것이고, 진평의 언행은 「금홀히 여긴다」고 평할 종류의 것이었다. 어찌서 그런지 어디가 다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다.

치밀한 주의력을 가진 왕은 늘 이 점을 관찰하고 속으로 근심하였다.

당신이 천추만세한 뒤에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물론 인자한 임금은 될 것이다. 지금의 재상 황희는 그때쯤은 한 더 미흡으로 화하게 되겠지만 정인지, 김종서, 남지-내려가 서는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成三問, 申叔舟, 朴彭年) 등 등의 인물이 잘 보필을 하면 혹은 훌륭한 왕업을 이룩하기도 하리라.

그러나 보필의 명신들의 힘으로 이룩한 왕업이, 명군 독재로 이룩한 왕업에는 비기지 못할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지금 세자의 단지 인자롭다는 단 한 가지의 장점(長點)만으로 국정을 보살핀다는 것을 왕은 늘 부족하게 보고 쓸쓸히 여기었다. 인자와 동시에 힘이 필요하고 관대(寬大)와 동시에 억셈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자는 한편



한국의 근대문학

이광수, 이조 500년 최고 성군 세조를 찬탄하는 <세조대왕>, 역경의 대가 운허의 사촌, 봉선사에서 집필

사흘을 쉬신 뒤에 윤삼월 이십칠일에 상감께서 근정전에 어(御)하시와 의정부와 육조의 조하를 받으시고, 동순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서와 또 환궁하신 뒤에 사리분신(舍利分身)된 하례를 받으시고, 살인, 도적, 남형관리(濫刑官吏) 이하의 죄를 사하라 하신 교지를 내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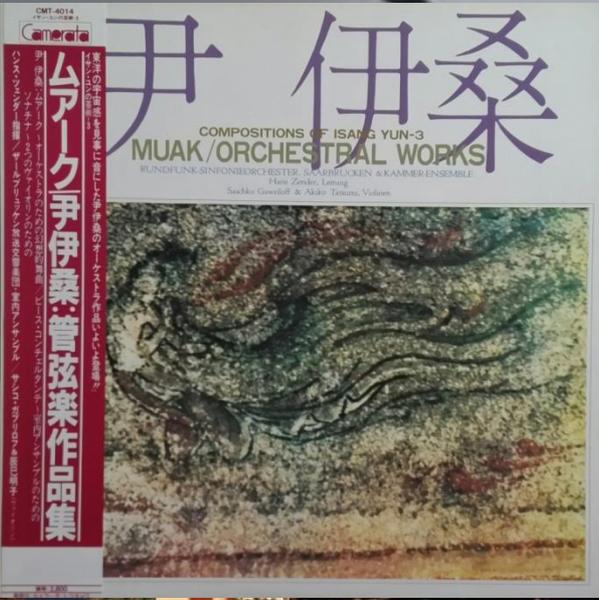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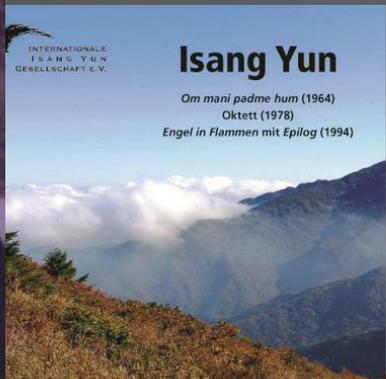
이날에 상감은 잔치를 베푸시고 동순에 호종하였던 제신과 서울에 남아 있던 제신들을 부르시와 술을 내리실 새, 일본국에서 온 퇴영(賴永)의 사자 중 수린(壽蘭) 등 두 사람도 차례케 하시고 이튿날은 퇴영의 사자 중 수린이 돌아감으로 일본 임금께 글을 부치니 그 글은 이러하였다.

隣竝修聘. 禮固當然. 第緣滄溟竟隔. 風濤爲□. 嘗遣一介. 中遭颺敗未逢. 區區徒切悵悵. 境雖異而心則同. 自當遙契. 爰迹之求. 我國有名山. 曰金剛. 東臨大海. 亭亭削白. 金湧雲表. 高廣不知幾由旬. 華嚴經所謂. 曇無竭菩薩與其眷屬萬二千. 常住說法者. 卽此山也. 頃予省方. 因詣茲山. 瞻禮三寶. 未至山麓. 地爲震動. 行人洞門. 瑞氣彌亘. 祥雲繚繞. 天雨白花. 大如桐葉. 甘露普酒. 草木如沐. 日色黃薄. 眼界皆成金色. 異香薰暢. 放大光明. 焜耀山谷. 仙鶴雙飛. 盤旋雲際. 山中諸刹. 舍利分身. 五色悉備. 及設揚勝會. 如上種種奇瑞重現. 又有曇無竭菩薩現無



불교와 한국 음악

유럽이 20세기의 베토벤이라 칭송한 윤이상
오페라 「심청」 「나무」, 「옴마니반메흠」은 「연꽃」 「고타
마의 물음」 「니르바나」 등의 불교 사상을
담은 작곡. 인천 용화사에 위패 안치, 일본방문 때
한국쪽을 향해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며 『조국통일
을 앞당겨 달라』고 서원함.



불교와 한국 영화



☆世界映畫에 挑戰하는— 韓國映畫史上 最高大作! 영원한 연인— 대관세음보살!

각본 신봉승
◎巨匠 崔寅炫監督

波瀾萬丈의 悲劇을 파고든다!
靈과 肉의 悲劇을 파고든다!
波瀾萬丈의 쇼킹 드라마!

製作 李于錫
김정하 / 유영국 / 김민 / 황혜 / 방수일 / 박영 / 노강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觀世音菩薩
세 음 보 살

오늘 (25日) 大開封
미성년자 관람가 700원 만년 기념포함

特別招待演 朴大희스님

10 12 30 12 30
3 5 5 40
8 10

대한세기

꿈

★新羅千年史에 얽힌 『無影塔』에 ...★아사니의 哀絶한 一大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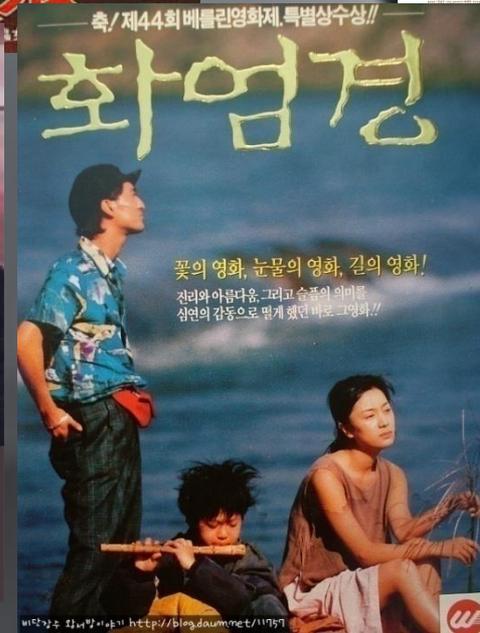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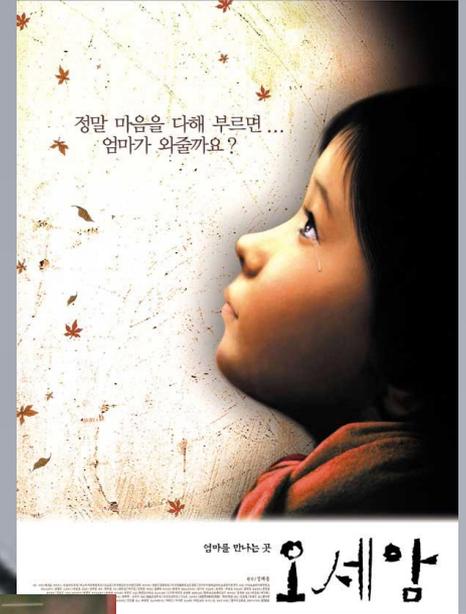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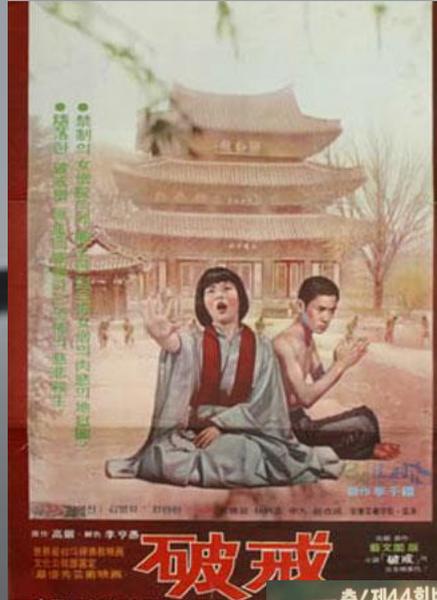
23日 開封

無影塔

尹妍賢 東亞

10 30
12 35
7 40
4 45
8 50
8 55

불교와 한국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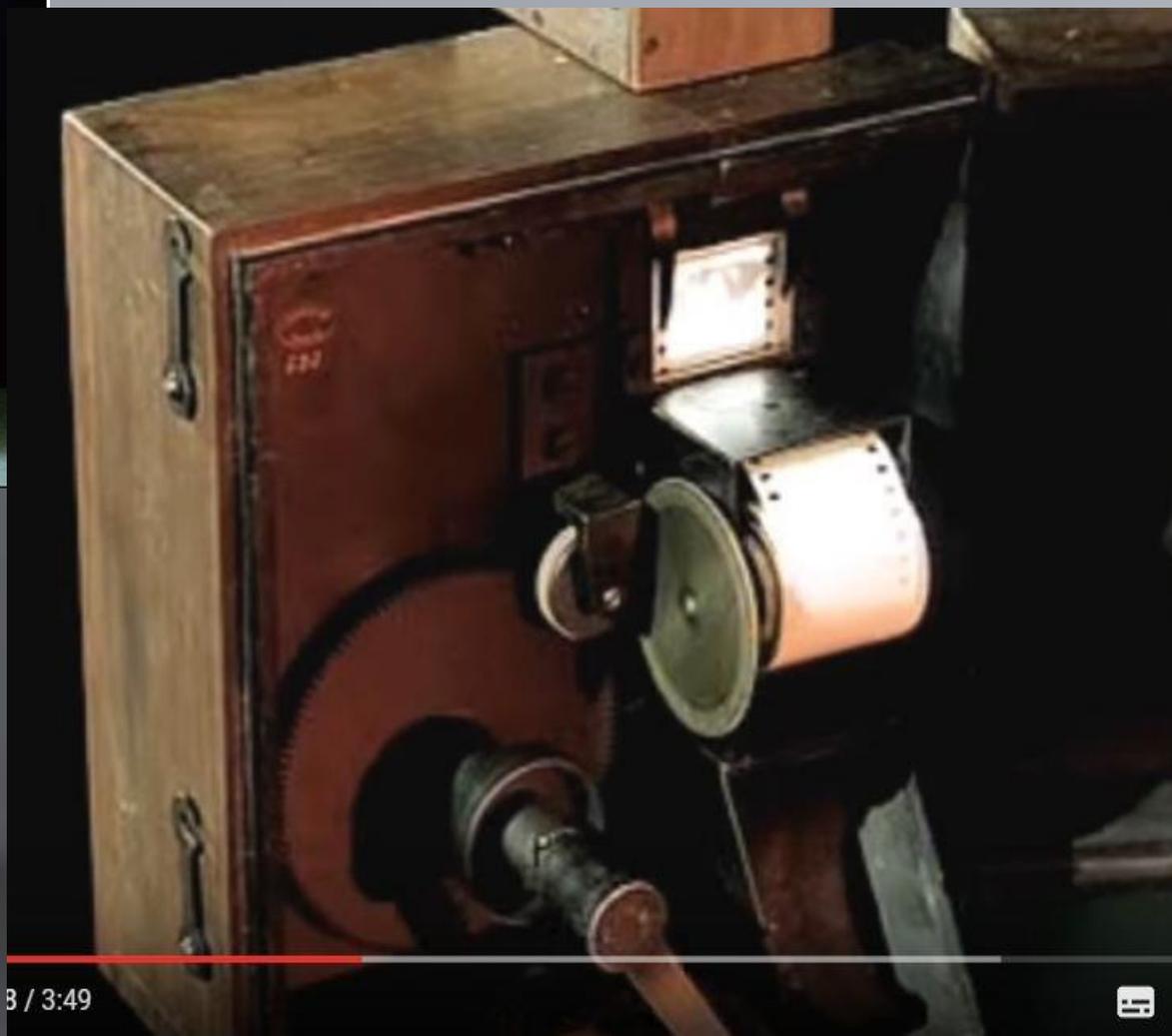
영화의 찰나생찰나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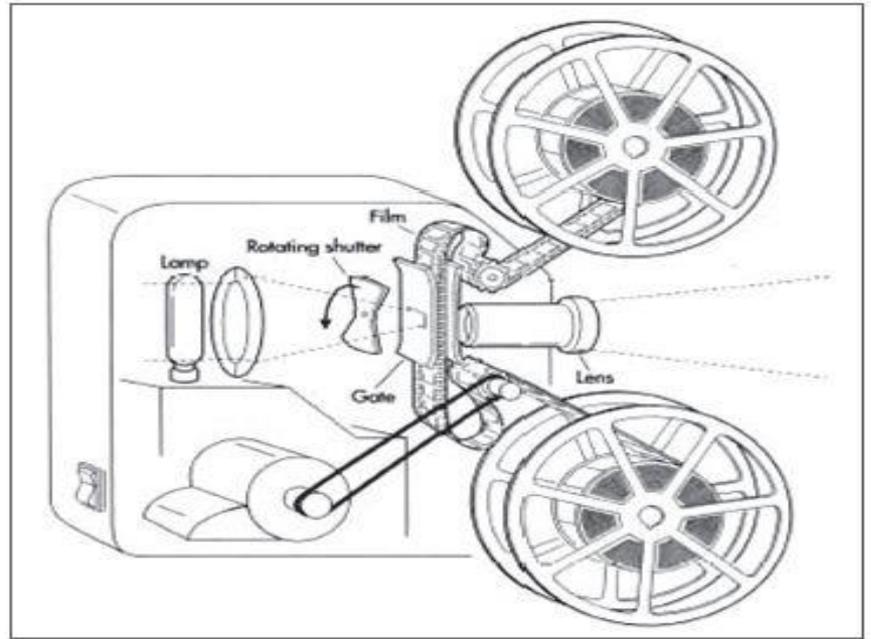
1. 규칙적 명멸 효과

영사기 램프 불빛이 계속 깜박거림

2. 네온사인 효과

극장 스크린은 1초 동안 48번 이상 깜박거림.
사람 눈은 1/10초 이상의 빠른 움직임을 볼 수
없어서 화면의 인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임.





바느질 과정에서 바늘이 부러지지 않는 것은 재봉틀의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노루발의 이동 원리에 의거한다.

블레이드 셔터가 빛을 차단하여 이미지가 움직이듯 보이게 된다. 현대식 영사기의 구조.



시네마토그래프의 광 차단 디스크. 영사기의 광원을 차단하고 있는 순간, 통과시키고 있는 순간.

왕실의 문화와 불교가 결합하여 세계 최고의 문화를 이루다

금강산 유점사(유)

유점사 53불상 중 하나(아래)



2000년을

불법의 가르침

지켜온

지켜낸

왜란과 호란을
불자와 의승군

